황금연휴도 쉴 틈 없다…방역 최일선 '코로나19 지킴이들'

보건소 직원·생활격리시설 근무자들 교대로 비상근무
톨게이트·택배 근로자·요양보호사 등 연휴 못 즐기고
광주·전남 수천명 달하는 무급휴가자들 쉬어도 '가시방석'

'황금연휴'가 시작됐지만 모두가 쉬거나 즐겁고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쉬지도 못하고 24시간 비상 근무해야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한자리대로 줄어들었지만 방역 담당자들은 여전히 비상 근무중이다. 황금연휴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광주 서구보건소의 경우 50여명의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연휴 기간 절반씩 매일 출근한다. 이들은 100일 넘도록 휴일에도 하루 12시간 씩 비상근무중이다. 서구를 비롯, 광주지역 5개 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관리하고 일하는 자가격리자들은 650여명에 이른다.

이경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직원 절반 가량이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중이지만 확진자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전원 출근해야 해 멀리 갈 수도 없고 쉬어도 쉬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가 머무는 생활격리시설인 광주소방학교와 5·18교육관 근무자 27명도 연휴 기간 쉴 수 없다. 현재 이들 생활시설에서 격리된 시민들은 45명이다

격리시설 근무자들은 운영총괄반과 시설·건강·심리지원반, 안전관리반으로 나뉘어 해외 입국자들을 밀착관리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8~24시간 등 제 각각이지만 남들처럼 편하게 휴일을 만끽하기란 힘들다.

순환도로 톨게이트 근무자들도 연휴를 즐기기 위해 도로를 빠져나가는 나들이객을 지켜봐야 한다.

광주지역 순환도로 톨게이트 근무자 100여명은 수납업무, 도로유지보수, 상황실 근무 등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매일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순환도로 톨게이트 근무자 A씨는 "시외로 빠져나가는 시민들을 보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연휴나 공휴일에는 배달 물량이 더 많아 쉬는 게 부담스럽다는 택배노동자, 몸이 불편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 등도 마음껏 장기 연휴를 즐길 수 없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야=황금 연휴에 쉬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경기 악화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근무하다가 무급 휴가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은 쉬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만 하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휴직자들도 수천명이 넘는 형편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광주, 전남·북지역 업체들은 지난 30일 기준으로 5656곳에 이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가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 휴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이 줄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수천명이 비자발적 휴업에 들어갔다는 계산이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휴업수당을 주는 사업주가 아닌,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 만큼 무급휴직자들도 적지 않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여행사에서 상품개발 업무를 담당했다가 최근 무급휴가에 들어간 오모(28)씨는 "취업난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자칫 무급휴직을 하다 그대로 실업자 신세가 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급휴가중인 수영강사 최모(32)씨도 "남들은 황금연휴에 이곳저곳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일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애꿎은 시민 돈 1300만원 날린 '책상머리 갑질 행정'

동구·경찰, 계림동 오거리 교통섬 설치 조건 오피스텔 신축 허가
1000만원 들여 교통섬 조성 후 교통사고 잇따르자 "다시 철거하라"
건축심의위, 현장 여건 등 고려 않고 도면만 보고 부실 심의 '비판'

현장 상황과 주민들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치단체와 경찰의 편의주의적 탁상 행정에 애꿎은 시민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9일 계림동 오거리 일대에 설치됐던 교통섬(도로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은 섬 모양 구조물)을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잦은 교통사고와 인근 상인 반발 등으로 지난 3월 4일 설치했다가 1달여 만에 이뤄졌다.

동구가 애초 교통섬 설치를 조건으로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하면서 건축주는 1000만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자치단체 철거 요청에 건축주는 300만원을 더 내고 철거까지 떠안았다. 책상머리 '갑질' 행정으로 애꿎은 시민 돈만 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는 2년 전인 2018년 9월 대인시장 맞은편에 오피스텔(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한 A씨에게 교통섬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했다. 동구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부지 앞과 대인시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인근 계림오거리 방향으로 변경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도록 제시했다.

동구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전달했고 경찰도 협의를 거쳐 교통섬 조성을 허가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 계림 오거리에 설치된 '교통섬'이 설치된지 한달여만인 지난 29일 철거되고 있다.

건축주는 이후 1년 여간의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3월 1000만원을 들여 교통섬을 만들었다.

부작용은 즉각 나타났다. 당장, 한달 동안 심야시간에만 교통섬으로 인한 3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인근 상가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교통섬이 들어선 뒤 2차로가 1차로로 좁아져 상가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게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동구는 다시 광주청에 교통섬 철거를 요청했고 경찰도 설치하라고 했던 입장을 바꿔 철거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의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결정 때문에 1300만원을 쓰게 된 셈이다.

건축이 들어서는 현장 상황과 도로 여건, 인근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도면만 보고 결정한 건축 심의위원회의 부실한 심의와 경찰의 허술한 심사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신축 현장 사무소측은 "교통섬이 생겨 불편하다는 인근 주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동구와 경찰청이 다시 협의해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음주운전 기소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네

"집유기간 범행" 검찰 입장 수용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범행인데도 법원이 벌금형 선고에 머무른 데 불복, 항소한 검찰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찰이 항소해 재판부가 형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혹을 더 붙인' 경우가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500만원)을 깨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코올 치료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목포시 산정로 동부시장 앞길에서 남농로까지 2.6㎞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고 동종 전력으로 4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부양해야할 가족과 집행유예가 A씨의 도주로 범행 이후 뒤늦게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꼼꼼한 양형 판단으로 형량을 높였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천 화재 희생자 대부분 일용직

사망자 38명 중 29명 신원 확인…외국인근로자 3명 포함

유증기 폭발서 비롯된 듯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30일 오전 현재 사망자 38명 중 2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전기 · 도장 · 설비 등의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화재 사고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뿐이다.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가 지문을 통해 29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지문 확인이 불가능한 나머지 9명의 유전자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조 시료가 확보되는 대로 확인 작업을 벌여 48시간 이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찰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이 확인된 29명 중에는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 2명 등 외국인 3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또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과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감식을 벌였다.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작업 등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어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유증기에 불을 붙인 원인 규명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화재 이후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시공사 등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준비되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진영 장관이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사망자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 치안활동

광주경찰청, 이달 말까지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다.

광주청은 외국인이 자주 찾는 클럽, 주점 등 범죄 발생 취약지 및 활동 시간대 등을 파악한 뒤 이달 말까지 예방적·가시적 형사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청은 국제범죄수사대, 형사·지역경찰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 우범지역 내 음주소란 행위·집단행동·무질서 행위 단속및 현장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8662	1	여수시 소호5길39, 304동 3층 301호 [소호동,주은금호아파트] 73.581㎡	아파트	167,000,000 167,000,000	2020타경51686[중복]
2019타경 8877	1	광양시 중마1길21, 205동 10층 1002호 [중동,광양중마2차진아리채] 84.7183㎡	아파트	252,000,000 252,000,000	
2019타경 56104	1	순천시 이수로224-29, 101동 12층 1205호 [덕암동,현대아파트] 59.955㎡	아파트	97,000,000 97,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9타경 8754	1	순천시 장천동 37-18 140.2㎡	대	142,288,600 142,288,6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순천시 장천4길 15-34 54.21㎡ 제시외 가축 등 47.9㎡	단독주택		
2019타경 9573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35 466㎡ 제시외 ㎡	단독주택	94,014,500 94,014,5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수목포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010-8 37.7㎡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8938	1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53-1 910㎡[공유자 이광식지분1/4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7,962,500 7,962,5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9타경 56463	1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682 1375㎡[전세열 지분2분의1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33,000,000 33,0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9타경 56647	1	여수시 덕충2길39, 상가동 1층 101호 [덕충동,덕충동귀인그린파크] 37.8㎡	근린시설	152,000,000 152,000,000	일괄매각
		동소39, 상가동 1층 102호 [덕충동,덕충동귀인그린파크] 37.8㎡	근린시설		
[기타]					
2019타경 8457	1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1173-2 3000㎡ 제시외 양만장,양만시설 수조외 각 1식.기계기구목록참조	양어장	527,041,600 527,041,600	일괄매각.기계기구포함[멸실된기호3,기호2중브로와[기호2-5]는제외].제시외건물포함.목록2액체산소탱크,콘테이너매각제외
		동소 1173-3 2000㎡	양어장		
		동소 1173-4 1000㎡ 제시외 창고 33.2㎡	양어장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014-7 97㎡ 부속건물 보일러실1.6㎡	관리사		
2019타경 55866	1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07-2 6,076.7㎡	공장용지	1,361,180,800 1,361,180,8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0. 5. 18.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5. 25.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말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